

12/22(수) 에스라 묵상 2

에스라 1:5-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했던 왕입니다.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선포합니다. 고레스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제로 빼앗아 온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빼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가지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말씀의 양면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레스는 포로 중 일부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온 자들 전체가 고향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고레스의 말에 순종하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당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는 약 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스 2:64-65,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비록 포로로 잡혀 온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지만 1차 포로 귀환자인 5만명은 그들이 가진 모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귀환 하게 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전쟁으로 인해 이미 무너지고 폐허가 된 황무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환자들에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힘든 결단이었던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렘 29:5-6,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바벨론에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꾸리고 있던 백성에게 고레스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던 포로들에게는 기쁨의 메시지가였지만 그와 반대로 바벨론의 생활에 흠뻑 젖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전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다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날을 과연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주는 만족과 평안에 취해 그 날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

고레스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앞장 서서 순종한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11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학자들은 본문 11절에서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을 ‘스룹바벨’로 보고 있습니다(스 5:16,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스룹바벨은 유다의 방백 즉 지도자로서 제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된 성전의 그릇들을 고레스로부터 되돌려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귀환한 포로들의 첫 총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룹바벨론의 지도력을 따라 오만명의 사람들은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천지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땅을 그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의 고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추적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부르심과 사명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롬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지만 주의 말씀에 자발적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 항상 소수입니다. 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약 250만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두 명의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열 명의 정탐꾼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오늘 말씀의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3. **교회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부목사: 신지훈, Peter Hwang, 교육전도사: 박예지(영유아부), 손영완(CM), 김반석, 형지희(Youth Group)).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비에트남 우석정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